

◆머느리권씨 열전 18-1

# 덕종(德宗)의 귀인 권씨(추밀공파? 권치명(權致命)의 딸, ?世)의 사라진 시신(屍身)!



사진 고양시 소재 서오릉내 경릉(敬陵), 덕종 추존왕의 능, 묘양은 세자형 형태이다. 그의 부인 소혜왕후 한씨의 능은 왕비의 격식으로 문인석등을 다 지었다. 이후 모든 추존왕의 능은 이 형식을 따른다.

### 조선왕실과 권문의 여인

왕실에 들어간 가문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불행의 아이콘이 되기 십상이다. 왕비가 되어 가문이 흥성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일장춘몽이다. 물론 말기의 상락 김씨들이 60년간 영화를 누리긴 했으나 망국의 원인이 되니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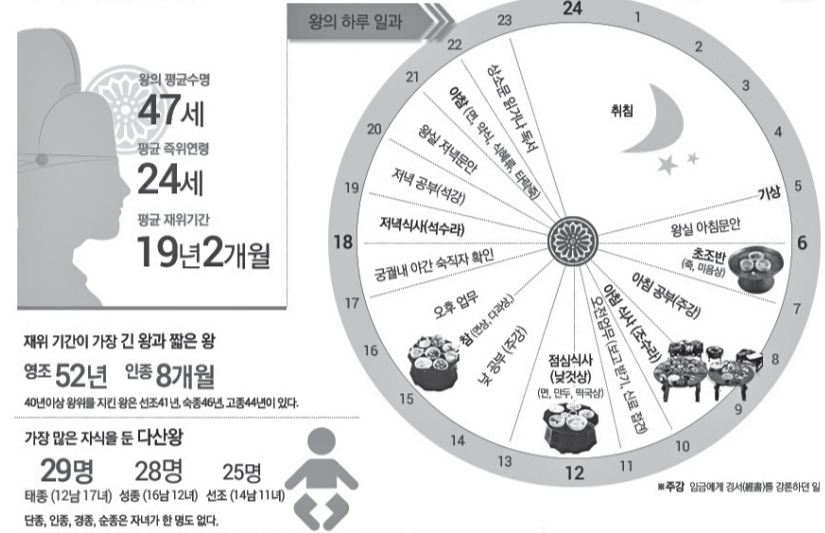
무슨 꼴인가 더구나 생전 20세 안팎의 세 자식, 정소공주, 광평대군, 평원대군의 죽음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 곧 세상을 떠난다.

태종의 의빈 권씨(정1품)로 권흥의 딸로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들어 갔으나 딸하나 낳고 그 응주도 수증사에 사리탑으로 남고 자신도 승려가 되고 아들 같던 금성대군의 죽음, 또 영주 흑석사의 불상 이야기등 60살 정도 살았지만 그녀의 일생은 신산(辛酸)했고 그녀의 무덤도 얼마 전 민족 분단의 상징 휴전선 스탠리 사격장 부근에서 발견되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부분은 이미 전에 소개한바가 있다.

문종의 현덕왕후 권순임(무품)과 소용 권씨(정3품)로 그 스토리는 다 아는 바이나 단종의 죽음으로 그들의 운명은 일가 몰살의 비극을 가져왔고, 다만 그녀가 사후에 일어난 일이니 다행이라던 다행이라할 수도 있지만, 좌우간 모친까지 사형 당한 것이다. 소용 권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여기서 세 번째 빈으로 사실상 왕후는 추존인데, 앞서 휘빈 김씨, 순빈 봉씨의 비극이 있다. 김씨는 퇴출되고 아버지 김오문의 손에 목졸라 죽고 김문오도 자결한다. 그 한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단종의 귀인 권씨(정2품)는 돈녕부 판관을 지내고 권람의 친척인 권완(權完)의 딸로 왕의 후궁이 되었다가 노비로 수직 하락하는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 진친, 권중비(權仲非)를 방면(放免)한다는 실록의 기사로 중비란 바로 노비의 이름이다. 조석문의 노비로 훗날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지만 간신배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이후 충청도 보은, 진천에서 지냈

###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기록



조선왕실의 권씨 여인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태종, 문종, 단종, 덕종, 연산군, 광해군까지 권씨 부인이 있다. 이렇듯 조선 전기에 왕실에는 권문의 딸이 9명 정도 있었으나 이후로는 없다. 이것은 곧 왕실 외척으로 권력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반증이다.

만일 단종(端宗)이 오래살고 하였으면 권문에 권력이 생기고 이후 김씨를 처럼 정권을 농단하는 세력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왕비열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단 한사람도 행복한 적이 없다. 이유는 '권력이 곧 불행'이기 때문이었다. 세종의 심황후는 무려 8남2녀를 낳았지만 그 부친 오빠들은 비명에 갔고 본인 사후의 일이지만,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셋째 안평대군, 여섯째 금성대군을 죽이고 그 만손자 단종도 죽이니 이게



사진 동구릉, 현릉(顯陵) 현덕왕후 권씨릉, 오른쪽은 초창자인 안산시 묵내동 관우물지, 소릉(昭陵)이라 한다. 지금은 공장 뒤에 위치하니 대중회의 관심 필요하다.

## 능곡회 회원 능동재사 일원 조정 작업



능곡회 권은달 등 5명의 회원이 시조 태사공과 아시조 낭중공 추향제를 준비하기 위해 11월 14일 오후 능동재사 일원에 대하여 조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권오윤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 추밀공파 정랑공 종중 시조 묘소 참배



추밀공파 정랑공(正郎公, 권율權樞, 27世) 종중 권규성 회장과 권영희 총무 등 회원 30여명이 11월 19일 시조 묘소를 참배했다. 정랑공 종중은 흥선종친회이기도 하다. 정랑공은 추밀공파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셋째 아들 재간공(齊簡公, 권규權圭, 17世)의 장남 돈녕공(敦寧公) 권담(權聃, 18世)의 후손이다. 권영희 총무

## 북야공파 문단공종친회 향사 봉행



문단공종친회(회장 권동술, 35世)는 11월 14일 예천군 지보면 신흥리 화봉재(花峯齋)에서 평리공(偉 積履, 12世), 문단공(偉 韓公漢功, 13世), 종정공(偉 宗宗宗, 15世)의 2023년 향사를 봉행하였다. 참제 인원은 60여 명이었으며 초헌관 권길상(權吉相, 36世), 아헌관 권문수(權文洙, 36世), 종헌관 권혁구(權赫球, 36世)가 행공하였다. 권갑현 편집위원장

## 북야공파 감정공종회 향사 봉행



북야공파 감정공종회(회장 권길상, 36世)는 11월 20일 함천군 대변면 성리 함천 임향조 감정공(監正公, 휘 집택執執, 19世) 묘소에서 2023년 향사를 봉행하였다. 참제 인원은 50여 명이었으며 초헌관 권민호(權敏鎬, 35世), 아헌관 권영현(權英鉉, 35世), 종헌관 권성근(權成根, 37世), 집례 권갑현(權甲鉉, 35世), 축관 권홍근(權弘根, 37世)이 행공하였다. 권민호 초헌관은 이번 향사의 제수용품 및 기념품 구입비 등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전담하였다. 권갑현 편집위원장

## 안동권씨 대총회 제2차 종보편집 및 1100년 편찬사업 회의 개최



안동권씨 종보편집위원회의 제2차 종보편집 및 1100년 편찬사업 회의가 11월 24일-25일 1박 2일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0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되었다. 권영창 회장을 비롯하여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중달 종사연구위원장, 권영섭 화백, 권해조 전 장군,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권기갑 대총회 부회장, 권태정 전 언론인(중앙일보), 권용만 전 교수, 권기탁, 권오달 편집위원, 권중수 상임위원,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만 편집국장, 권우미 총무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영창 회장은 "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금나라 아골타 문제 등 편집위원들이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아서 심도 깊은 토론 후에 단계별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한 후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둘러보았다. 권행만 편집국장

## 검교공파 서울총회 모임

2023년 10월 24일 고봉삼계당에서 권태정 회장을 비롯한 권영기 총무, 권오윤 전 대총회 사무총장 등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족친간의 친목 도모와 검교공파총회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권오윤 전 사무총장

